

Provincial Economic Trends in China

중국 성(省)별 동향 브리핑

대외경제정책연구원 www.kiep.go.kr 137-747 서울시 서초구 양재대로 108 2010년 4월 22일

2010년 중국 성(省)별 양회의 주요 내용과 평가: 장쑤(江蘇) 성



KIEP 1990-2010

노수연 세계지역연구센터 중국 권역별·성별 연구단 초청연구원 (syno@kiep.go.kr, Tel: 3460-1284)

▣ 지난 2월 25~29일간 개최된 장쑤(江蘇)성 양회에서는 2009년 주요 성과 보고와 2010년도 발전목표가 제시되었음.

- 장쑤성은 2009년 전국 평균인 8.7%보다 높은 12.4%의 GRDP(지역 내 총생산) 성장률을 기록했으며, 규모 면에서도 전국 2위를 차지했음. 또한 도시주민 1인당 가처분소득이 최초로 2만 위안을 돌파해 전국 3위를 차지했음.
- 지역의 균형발전에도 성과가 있어 쑤난, 쑤중, 쑤베이 등 3대 권역(본문 참고) 중 쑤중, 쑤베이 지역이 전통적으로 강세였던 쑤난지역보다 공업부가가치, 도시고정자산투자 등의 분야에서 높은 성장률을 보였음.

▣ 2010년 장쑤성은 '내용도 좋고 속도도 빠른' 경제발전 촉진을 목표로 함.

- GRDP 성장률 10% 증가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부동산업을 중심으로 한 내수촉진과 고용확대를 최우선으로 한 민생개선을 주요 목표로 삼음.
- 전략적으로 신흥 산업을 발전시키고 도시화 촉진을 통한 도농통합, 연해개발을 중심으로 한 지역의 조화로운 발전을 추진할 계획임.

▣ 장쑤성은 2010년에도 안정적인 성장과 지역격차 완화에서 성과를 보일 전망이다.

- 대내외 경제환경 개선 등에 힘입어 10% 성장률은 무난히 달성할 것임.
- 3대 지역 간의 GRDP, 1인당 GRDP 등의 절대치 격차는 여전하나, 최근 들어 쑤베이지역으로의 생산공장 이전이나 투자유치활동이 활발해지고 있음.
- 장쑤성은 한국의 對중국 지역별 최대 수출지역으로서, 양국 경제가 회복됨에 따라 수출증가세를 회복할 것임.
- 상하이엑스포를 적극 활용하여 지역경제의 장기적 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것임.

1. 장쑤(江蘇)성 양회 개요

- 장쑤(江蘇)성 제11회 인민대표대회 3차 회의(26~29일)와 정치협상회의 제10회 3차 회의(25~28일)가 난징(南京)에서 개최되었음.
- 양회 기간 동안 2009년 경제, 사회적 성과를 정리하는 한편, 2010년의 주요 경제, 사회 발전목표가 제시되었음.

2. 2009년 주요 성과

■ GRDP의 높은 성장률

- 2009년 장쑤성 전체 GRDP는 3조 4,061억 1,900만 위안으로 12.4% 성장했음.
- 이는 2008년 성장률 12.5%와 비슷한 수준임.
- GRDP 규모 면에서 3조 9,082억 위안인 광둥(廣東)성에 이어 전국 2위를 차지했으며, 성장률은 전국 평균보다 3.7%포인트 높음.
- 글로벌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높은 성장률을 기록한 데에는 장쑤성 정부의 투자가 주효했음.
- 장쑤성 정부는 총투자액 1조 3,836억 위안 규모인 160개 연도 중점 건설프로젝트를 시행하면서 2009년 한 해 약 3,000억 위안을 투입했는데, 이는 1998년 이래 최대 규모의 투자였음. 이번 정부투자를 통해 1조 2,000억 위안 규모의 사회투자를 유도했음.
- 2009년 중점 프로젝트 중 1/4은 중대 기초시설 건설이 차지했으며, 이는 장쑤성이 향후 현대적인 종합 교통운수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하면서 철도와 항구 건설에 주력할 것임을 보여줌.

■ 주민소득의 증대

- 1인당 GRDP가 4만 4,232위안으로 6,475달러에 상당함.
- 도시주민 1인당 가처분소득이 최초로 2만 위안을 돌파한 2만 552위안에 달함.

- 이로써 장쑤성은 △ 상하이시 2만 8,838위안 △ 저장(浙江)성 2만 4,600위안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소득수준을 차지함.
- 이는 △ 고용이 회복세를 보이면서 임금소득이 9.4% 증가하고 △ 주택임대수입 및 이자수입 등 재산소득이 24.2% 증가했으며 △ 양로금 및 퇴직금 등 이전소득이 17% 증가하는 등 다양한 수입원이 증가한 데에 기인함.¹⁾
- 농민 1인당 순수입은 9.4% 증가해 처음으로 8,000위안을 돌파한 8,004위안을 기록함.

■ 내수확대

- 전 사회 고정자산투자액이 1조 8,751억 6,000만 위안으로 24.5% 성장했음.
- 사회소비재 소매총액은 18.9% 성장한 1조 1,484억 1,000만 위안을 기록했음.
- △ 도소매업 소매액이 18.3% 증가 △ 숙박·요식업이 22.5% 증가 △ 자동차 판매액이 1,128억 위안으로 36.3% 증가했음.

■ 지역의 균형발전

- 장쑤성은 크게 쑤난(蘇南), 쑤중(蘇中), 쑤베이(蘇北)로 구분함(그림 1 참고).²⁾
- 지리적으로 거대시장인 상하이(上海)에 인접한 쑤난지역이 전통적으로 경제가 발전했음.
- 2009년에는 쑤중, 쑤베이 지역의 성장이 가속화되었음.
- 쑤중, 쑤베이 지역의 성 전체 경제성장 기여도는 전년보다 2.9%포인트 늘어난 42.3%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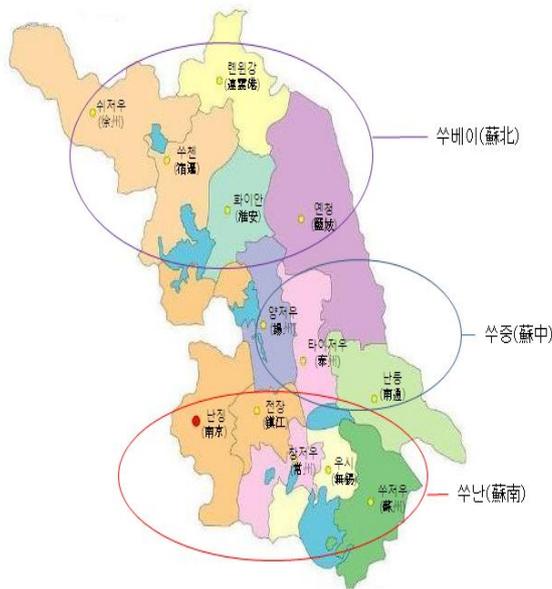


그림 1. 장쑤성 3대 지역 구분

1) 중국의 1인당 가처분소득은 임금소득(工資性收入), 이전소득(轉移性收入), 경영소득(經營性收入), 재산소득(財產性收入)의 합계로 구성됨.
 2) 구체적으로 쑤난지역은 난징, 전장, 창저우, 우시, 쑤저우 등 5개 도시로 구성되고, 쑤중지역은 양저우, 타이저우, 난통 등 3개 도시가 포함되며, 쑤베이지역은 련윈강, 쉬저우, 쑤첸, 화이안, 옌청 등 5개 도시로 구성됨.

표 1. 장쑤성 3대 지역 비교

(단위: %)

항목	쑤난	쑤중	쑤베이
규모 이상1) 공업부가가치 성장률	12.5	16.7	17.4
도시고정자산투자 증가율	20.5	26.7	30.4
사회소비재 소매총액 증가율	18.8	18.7	19.1
지방재정 일반 예산수입 증가율	13.1	27.3	35.1

주: 1) '규모 이상 공업기업'은 모든 국유공업기업 및 연매출액 500만 위안 이상인 비국유공업기업을 의미함.
 자료: 장쑤성 정부 기자회견 사이트(www.jiangsu.gov.cn).

- 이 두 지역은 쑤난지역보다 공업부가가치, 도시고정자산투자, 사회소비재 소매총액, 지방재정 일반 예산수입 등에서 전반적으로 더 높은 성장속도를 보였음(표 1 참고).

3. 2010년 목표

■ 경제, 사회 발전 주요 목표

① 경제발전방식의 전환

- 신흥 전략산업 육성을 통한 혁신형 경제를 발전시킴.
- 현대화된 농업을 기초로 하고, 선진 제조업이 이를 뒷받침하며, 서비스업이 주도하는 형태의 산업시스템을 구축함.

② 내수확대의 지속적 추진

- 경제성장의 견인차로 투자를 중시하던 예년과는 달리 올해는 내수촉진을 먼저 다루었음.
- 구체적인 소비촉진방법으로 '부동산업의 건강한 발전'을 우선순위에 둠.
- 부동산가격의 과도한 인상을 억제하고 중저가 주택 공급을 확대할 것임.
- 서민주택 공급을 늘려 △ 저가임대주택과 서민형 주택의 수혜기준을 확대하고 △ 공공 임대주택을 10만 채 늘릴 것임.

- 도시화 사업을 가속화해 농민 100만 명을 도시민으로 편입시켜 새로운 소비집단으로 부상시킬 계획임.

③ 민생 개선

- 고용확대를 최우선과제로 삼음.
- 2009년 말로 끝날 예정이던 고용지원정책을 1년 더 연장함.
- 도시취업자 90만 명 이상, 도시이주 농촌근로자 35만 명의 신규 고용을 창출할 것임.

표 2. 2010년도 장쑤성 주요 거시경제목표

항 목	목 표
GRDP 성장률	10% 증가
지방 일반예산 수입	10% 증가
사회고정자산투자	18% 증가
사회소비재 소매총액	17% 증가
대외무역 수출입총액	5% 이상 증가
R&D 투입이 GRDP에서 차지하는 비중	2% 이상
1만 위안 GRDP당 에너지 소모율	4% 감소
도시주민 1인당 가처분소득	10% 증가
농촌주민 1인당 순수입	9% 증가
도시실업률	4% 이내

■ '내용도 좋고 속도도 빠르(又好又快)' 발전의 촉진

① 경제의 안정적 발전 유지와 소비수요 확대

- 관광, 자동차, 통신 등 분야의 소비를 촉진함.
- 기존의 가전, 자동차, 오토바이 관련 구매보조금정책(일명 하향(下鄉)정책)을 유지하고, 농기계 구매보조금을 추가로 지원해 농촌소비시장을 개척함.
- 부동산산업의 안정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촉진함.

② 경제구조조정 강화

- 전략적 신흥 산업을 적극 발전시킴.

- △ 신에너지 △ 스마트그리드(smart grid)³⁾ △ 신소재 △ 바이오기술 △ 신약 △ 에너지절약 및 환경보호 △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 아웃소싱 △ 사물 간 인터넷(internet of things)⁴⁾ 등 중점 신흥 산업의 발전을 적극 지원함.
- 실제로 장쑤성은 태양광, 풍력발전, 바이오의약, 사물 간 인터넷분야 등에서 전국 수위를 차지하고 있음.⁵⁾

③ 도농 통합의 추진과 '3농(三農)'⁶⁾ 발전의 기초 다지기

- 도시화 촉진을 내수확대전략의 핵심으로 함.

- 도시와 주요 읍(鎭)의 조화로운 발전, 도시화와 신(新)농촌건설의 상호 작용을 촉진함.
- 체제상의 문제점 해결을 위해 △ 호적제도 개혁을 추진하고 △ 관련 부대정책을 정비하며 △ 도시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중 조건에 부합하는 사람들의 호적 및 사회보장문제를 해결할 계획임.

④ 연해개발을 중심으로 전체 성(省)의 조화로운 발전을 추진

- <장쑤연해지역발전계획(江蘇沿海地區發展規劃, 이하 계획)>⁷⁾을 본격적으로 시행함.

- <계획>은 2009년 6월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통과됨으로써 장쑤성 최초로 지역개발계획이 국가급 전략으로 격상되는 사례가 되었음.

3) 스마트그리드(Smart Grid)는 차세대 전력망 시스템으로, 기존의 전력생산, 운반, 소비의 과정에 IT 기술을 접목하여 전기 사용량과 공급량, 전력선의 상태까지 실시간으로 알 수 있게 함으로써 전력공급자와 소비자의 상호 작용을 통해 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인 것임.

4) 사물통신이라고도 함. 사물 간 인터넷(Internet of Things)은 광대역통합망(BcN), 차세대 인터넷 주소체계(IPv6) 등 사람 중심의 인터넷 인프라를 인간 對 사물, 사물 對 사물 간의 영역으로 확대-연계하여 이동통신(2G/3G)과 와이브로(WiBro) 기반기술을 활용함으로써 저렴하면서 광범위한 확장성과 이동성을 통해 사물의 정보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감지, 전달할 수 있는 미래 방송통신융합 인프라를 뜻함.

5) 태양광분야의 경우 중국 전체 제조능력의 60% 이상, 전 세계 태양광 실리콘 칩 생산능력의 50%가 장쑤성에 집중되어 있음. 또한 풍력설비제조능력은 세계의 1/4을 차지하며, 중국에서 바이오의약 하청 기지로 가장 빠른 발전을 보이는 지역이 장쑤성임. 사물 간 인터넷의 경우 중국 최초의 감지센터가 장쑤성에 위치함.

6) 농민, 농촌, 농업을 지칭하는 말로서 농민의 소득증대, 농업성장, 농촌의 안정을 목표로 함.

7) <장쑤연해지역발전계획>은 랴오닝강, 연청, 난통시 등 3개 연해도시의 종합개발을 목표로 2006년 수립되었음. 개발기간은 2009~20년까지이며, 지리적 이점을 활용한 종합 교통허브 구축과 농업, 선진적 제조업, 신에너지산업, 서비스업 발전이 주요 내용임. 제1단계인 2012년까지 1인당 지역총생산액 4만 위안, 도시화율 55% 달성을 목표로 하고, 제2단계인 2020년까지 1인당 지역총생산액은 목표연도의 동부 지역 평균수준 이상, 도시화율은 65% 달성을 목표로 함.

- <계획>에 따라 련윈강(連雲港)이 연해개발을 주도하고, 난통(南通) 및 옌청(鹽城) 등 연해지역의 항구군(港口群)을 중심으로 한 종합 교통허브 및 네트워크 건설을 강화함.
- 항구 인근의 산업벨트 발전을 가속화하고, 연해 특색산업기지를 육성함.
- 장쑤성 3대 지역 간의 조화로운 발전을 추진
- 쑤베이지역의 각 도시는 △ 도시로서의 기능을 확고히 하고 △ 연해개발과 장강삼각주 지역 편입이라는 호기를 활용해 공업화, 도시화를 추진함.
- 쑤중지역은 산업 업그레이드를 추진함.
- 쑤난지역은 △ 혁신형 경제발전에 주력하고 △ 경제발전방식 전환에 솔선수범하며 △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 상하이엑스포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장강삼각주지역의 협력을 제고하고 △ 자원을 통합하고 타 지역과의 상호 보완을 통해 지역통합을 가속화할 것임.

4. 평가와 전망

■ 2010년은 질적 성장을 안정적으로 꾀하는 한 해가 될 것임.

- 장쑤성 정부는 2010년 GRDP 성장률 10%를 목표로 하고 있음.
- 이는 올해 대내외 경제환경이 작년보다 개선될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에도 불구하고 작년 성장률인 12.4%보다 낮게 책정된 목표치로서, 장쑤성이 질적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음을 입증함.
- 일례로 올해는 정부업무보고에서 최초로 “R&D 경비가 GR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경제, 사회 발전목표에 포함시킴으로써 기업 및 각급 정부에 혁신주도형 성장을 추진할 것을 장려함.
- 성장률 10% 목표는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전망됨.
- 장쑤연해개발이 2009년 국가급 전략으로 지위가 격상되고, 성 전체가 장강삼각주 통합에 편입된 것이 2010년 장쑤성 경제, 사회 성장에 호재로 작용할 것임.

- 2009년 소비, 투자, 무역이 경제성장에 미친 기여도를 비교하면 소비가 7.3%포인트 상승한 52.6%를 차지하고 있는데,⁸⁾ 2010년에는 차세대 소비시장으로 각광받고 있는 농촌 소비시장의 확대를 통해 그 기여도가 더 높아질 것임.
- 장쑤사회과학원 쑹린페이(宋林飛) 원장은 2010년도 장쑤성 경제성장률이 10.3~12.3% 사이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으며,⁹⁾ EIU(Economist Intelligence Unit)에서도 성장률을 13%로 낙관하고 있음.

■ 3대 지역 간 격차는 여전하나 쑤베이지역의 발전 추진에 따라 향후 개선될 전망이다.

- 2009년 쑤중, 쑤베이 지역의 성장이 가속화되었으나(표 1 참고), 아직까지 3대 지역 간 절대치의 격차는 눈에 띄게 좁혀지지는 않음.
- 쑤난, 쑤중, 쑤베이의 GRDP는 1999년 각각 약 4,351억 위안, 1,466억 위안, 1,820억 위안에서 2008년에는 1조 8,505억 위안, 5,477억 위안, 5,952억 위안으로 증가했는데, 장쑤성 전체 GRDP에서 쑤난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9년 약 57%에서 2008년에는 61.8%로 오히려 증가했음(그림 2 참고).
- 쑤난, 쑤중, 쑤베이 지역 1인당 GRDP의 경우, 2001년 각각 2만 4,229위안, 1만 164위안, 6,649위안에서 2008년에는 6만 6,583위안, 3만 3,178위안, 1만 7,808위안으로 증가해 쑤난과 나머지 2개 지역 간의 차이에 큰 변화가 없었으며, 쑤베이는 오히려 쑤난과의 격차가 더 벌어졌음(그림 3 참고).

그림 2. 장쑤성 3대 지역별 GRD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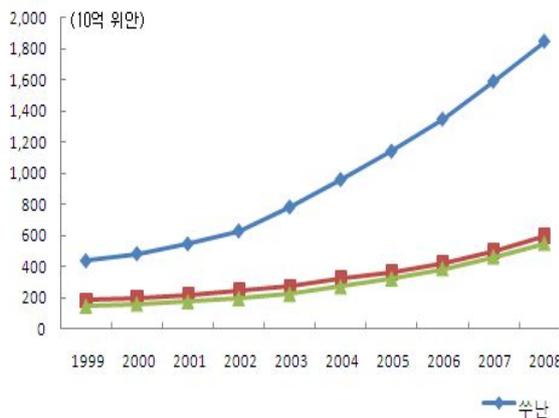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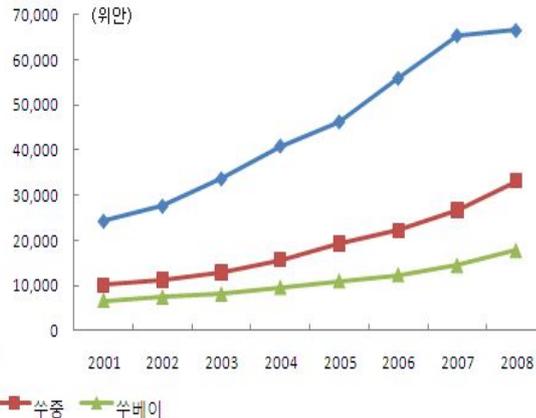


그림 3. 장쑤성 3대 지역별 1인당 GRD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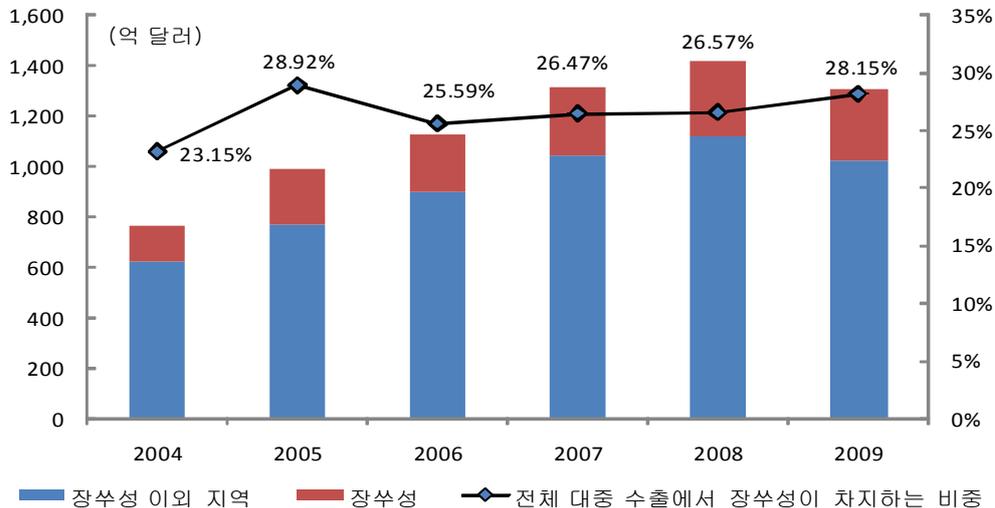


자료: CEIC Data 재정리.

8) “2009년 장쑤성 경제·사회 발전 현황” 기자회견석 상에서 장웨이둥(張衛東) 통계국 국장이 밝힌 내용임.
 9) 『观察与思考』(2010. 1. 4), 「전문가들이 말하는 경제정책의 연속성 유지 문제」.

- 최근 들어 쑤베이지역으로의 생산공장 이전이나 투자유치활동은 주목할 만함.
-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장쑤성의 도착기준 외국자본은 253억 2,000만 달러로, 전국 외자총액의 28.1%를 차지하며, 7년 연속 전국 1위를 기록했다. 또한 실제 사용 외자규모가 전국 1위를 유지하는 등 장쑤성은 중국 최대의 외자유치지역임.
- 특히 우시(無錫)와 수쩌우(蘇州)를 중심으로 한 쑤난지역에 외국인투자가 전통적으로 집중되어왔으나, 최근 들어 쑤베이지역으로의 투자가 늘어나고 있고 성 정부에서도 이를 위해 노력하고 있어, 장기적으로는 지역 간 격차 해소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¹⁰⁾
- 2010년 한국과 장쑤성 간의 수출입무역은 증가세를 회복할 것임.
- 장쑤성은 2009년 한국의 對중국 지역별 최대 수출대상지역이자, 두 번째로 큰 수입지역임.
- 장쑤성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년 연속 한국의 중국 내 최대 수출지역임.
- 한국과 장쑤성 간의 수출입이 전체 한중 간 수출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그림 4 참고).

그림 4. 한국의 對장쑤성 수출 현황



자료: 한국무역협회 중국무역 재정리(www.kita.or.kr).¹¹⁾

10) 마그네슘합금 주조업체인 대만의 Catcher Technology사는 쑤치엔(宿遷)시 북부에 6억 달러를 투자하고 2008년 12월 공장 건설 착공했음. 쑤원강시의 경우 2008년 9억 2,000만 달러의 투자를 유치했음.

11) 데이터 출처에 따라 수치에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2010년에는 글로벌 경제가 회복되고 한중 양국 간 교류도 더욱 활발해짐에 따라 한국과 장쑤성 간의 수출입도 다시 증가세를 회복할 전망이다.¹²⁾

■ 장쑤성 경제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2010년 상하이엑스포를 적극 활용할 것임.

- 상하이엑스포를 활용한 관광업의 발전을 추진함.

○ 엑스포 관람객 7,000만 명 중 30%가 장쑤성을 여행할 것으로 추산됨에 따라 2010년 관광업 부가가치액을 1,900억 위안, 15% 이상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음.¹³⁾

○ 엑스포 박람회장 내에서는 △ 장쑤성 전시관을 운영하고 △ 쑤저우(蘇州), 쿤산(昆山), 양저우(楊州), 저우좡(周庄) 시가 우수 도시 사례로 선정되어 우수 도시실천관을 운영하며 △ '장쑤 주간' 이벤트를 진행하는 등 다양한 행사를 준비하고 있음.

- 엑스포 행사장 건설에 직접 참여함.

○ 일례로 건축업의 경우, 15개의 전시관 건설을 전담했고, 500만 위안 이상 규모의 프로젝트 70여 건을 맡아 계약액이 35억 위안에 달함. 이는 엑스포 사업에 참가한 상하이 이외 지역 중 최대 수주 규모임.¹⁴⁾

- 장쑤성 기업의 국내외 인지도 상승을 목표로 함.

○ 친환경, 지능형 도시를 표방하는 상하이엑스포를 계기로 청정에너지 및 사물 간 인터넷 관련 사업이 늘어날 전망이다. 이 분야들에 경쟁력 있는 장쑤성 기업들이 엑스포를 통해 국제시장에서의 영향력을 높이고 해외시장을 개척할 수 있음.

○ 특히 6월 13~17일까지 5일간 열릴 '장쑤 주간' 동안 국내외에 장쑤성의 사업기회를 적극 홍보할 계획임. **KIEP**

12) 실제로 2010년 1~2월 간 한국의 對장쑤성 누계 수출액은 약 57억 5,000만 달러로 동기대비 78.3% 증가했음.

13) 『第一财经日报』(2010. 2. 24), 「장쑤성, 엑스포를 계기로 관광대성(省)으로 발전」.

14) 『建筑时报』(2010. 3. 8), 「장쑤성 시공업체, 엑스포를 계기로 새로운 단계 접어들어」.